

학교 선도부 유사 기구도 폐지해야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이 학생 지도하는 것 인권침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 선도부 폐지를 재차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 선도부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며 여러 차례 폐지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명칭만 바꿔 운영 중인 학교들이 있다면서 이들 학교는 당장 폐지할지를 밝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선도부와 비슷한 성격의 집단을 '학생규율부', '학생자치부', '생활지도부', '병

예부' 등으로 명칭만 바꿔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인권심의위는 "학생 생활지도는 교원의 고유 권한으로 이 권한을 학생선도부 또는 학생자치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학교생활규정의

로 학생회장 임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검토해 관련 조항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자유선거의 원칙 중 핵심적인 것이 임후보의 자유다. 이를 어기면 안된다"면서 "학생회장 출마 시 성적기준, 교사 추천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해은 기자

도교육청, 다음달 14일 배움·성장의 수업 한마당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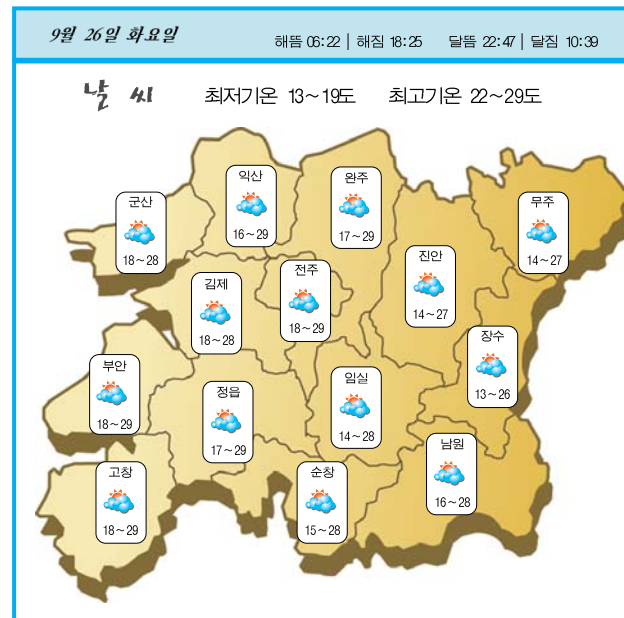
전북도교육청이 다음달 14일 배움과 성장의 수업 한마당을 개최한다. 25일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수업 성찰과 성장경험을 나눠 교사의 내적동기를 회복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 혁신을 위해 '배움과 성장의 수업 한마당'을 14일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독일 빈터후데학교 피터겐 학교 교사와 나누는 수업 이야기, 초·중·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사례도 나눈다.

수석교사들의 수업 열기도 있다.

/정해은 기자



치즈·조리 명장 육성의 요람

한국치즈과학고 '꿈트는 치즈 N 스쿨' 준공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교장 설동주)에 치즈 조리 명장들이 육성될 터전인 학교기업 '꿈트는 치즈 N 스쿨'이 완공돼 최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 관내의 기관장 및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여 '꿈트는 치즈 N 스쿨'의 발전을 축복하고 기원했다.

2015년 10월부터 학교기업 시설 축산물 HACCP컨설팅을 시작으로 2016년 3월 25일부터 당해 12월 14일까지 약 9개월에 걸쳐 학교기업 건물을 완공했다.

올해 3월 영입허가 및 생산품목으로 발효유 한 종류, 치즈 두 종류, 총 3종의 품목 제조보고서 허가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았다.

설 교장은 "치즈산업의 메카인 입실군에 소재하여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학교기업으로서의 이름에 걸맞게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는 치즈와 요거트 생산에 매진하여 성공한 학교기업의 위상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 후에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재능기부 활동'으로 한국치즈과학고가 소재한 입실군 강진면의 어르신들 50명을 초대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을 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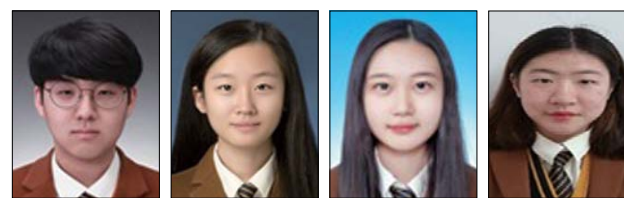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교장 설동주)에 치즈, 조리 명장들이 육성될 터전인 학교기업 '꿈트는 치즈 N 스쿨'이 완공돼 최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 관내의 기관장 및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여 '꿈트는 치즈 N 스쿨'의 발전을 축복하고 기원했다.

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으며 방과 후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행복동행캠프'를 진행하며 학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북외고 학생들, 각종 대회 휩쓸어



염정원 학생, 조유진 학생, 장서빈 학생, 김희선 학생

한중우호협회와 주관 중국대사관이 주최하고 금호아시아나가 후원하는 제17회 금호아시아나배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전북외고 중국어과 2학년 염정원 학생이 대상, 1학년 김영중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각종 대회에서 전북외고 학생들의 수상이 잇따르고 있어 전북외고가 명실공히 외국어 영재들의 꿈을 이루는 학교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서울 광화문 문화아트홀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염정원 학생은 우리의 반쪽 하늘을 지켜줍시다'는 제목의 원고를 유창한 발음으로 발표하여 심사위원을 비롯한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염

군에게는 일주일간의 중국 견학과 상해시 국제 청소년 캠프 참가 기회를 부상으로 받게 되었다.

한편 일본어과 2학년 조유진 학생은 제6회 전국고등학생 일본어스피치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일본 외무성에서 주관하는 9월10일 간의 방문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고 2학년 장서빈 학생 역시 제6회 전북고등학교 J-POP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9월10일의 일본연수 기회를 얻었다.

이밖에 연세대에서 개최된 전국고교생 프랑스시낭송대회에서는 프랑스어과 2학년 김희선 학생이 빅토르 위고의 시를 암송하여 동상을 차지 한 바 있다.

/군산=김관곤 기자

전북대 동물의료센터-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협약

전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옴공학과가 학술 및 연구 활동 협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최근 전북대 동물의료센터 교수회의실에서 박철 센터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수의 임상 연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연구 활동 교류를 위해 추진된 것. 협력 강화를 위해 협동연구 등을 통한 공동연구 개발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학술과 기술정보 교류에 상호 협력기로 했다.

/정해은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14살 소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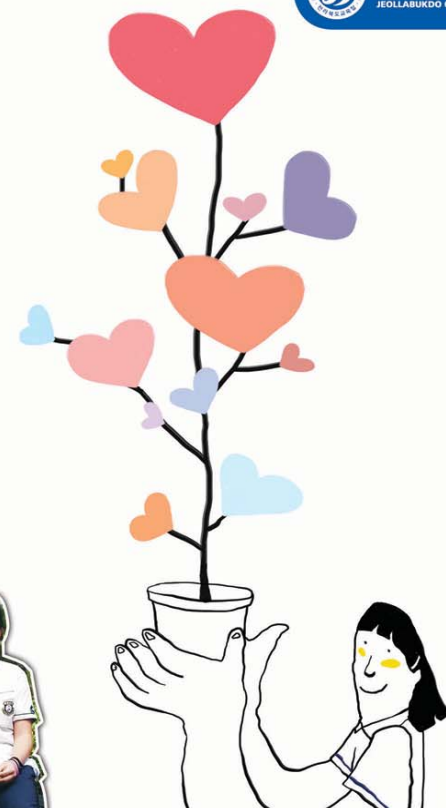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영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